

보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길은 오카스네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別館發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용마온정 '술술'

본부, 동문돕기 대출제 본격운영... 심사 착수

본부동창회(회장 정소영·6회)의 동문돕기 장학금 대출제가 본격 운영을 위해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동기회와 동호인 모임, 개인 등의 이웃돕기 온정이 봄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본부는 대학 재학 또는 박사코스 등을 밟고 있는 동문들중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몇몇 동문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제17회 동기회(회장 文錫雄)는 2월 5일 동기회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6명의 동기생 자녀(대학생)에

제17회 동기회
동문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백만원

추경석(8회)
독립유공자 후손에
생계비 5백만원

제 장학금 1백만원씩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는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수혜자의 규모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추경석동문(8회·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써달라고 거금 5백만원을 최근 서울지방보훈청에 기탁했다.

추경석은 부산 동래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고(故) 추규영 애국지사의 장남으로, 95년부터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매년 서울지방보훈청에 기탁해오고 있다.

신선한 감동... 결식학생돕기 연주회

'화음의 전도사' 다솜중창단 창단10주년 특별기획 화제 모아

'화음의 전도사' 다솜중창단. 모교 경남고 음악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다솜중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결식학생돕기 특별연주회(사진)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2월 27일(土) 오후 7시30분 부산 문화회관 중강당. 다솜중창단의 중후한 화음의 포근함이 조만원을 이룬 연주회장을 감쌌다. 오페라 아리아, 흑인연가 모음곡, 우리가곡과 민요, 가요, 팝송 등으로 아우러진 매혹의 연주회는 객석을 사로잡았다. 합창지휘



는 1기장인 최용호가 맡았고 반주 문상인·바이올린 독주 장건호(2기)·남성2중창 김치훈 최지훈(3기)·기타 중창멤버 등이 앙상블을 이뤘다. 특별

출연한 부산의 젊은 음악인의 부산콘서트코어가 돋보였다.

다솜중창단은 이날 연주회 수익금을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에 기탁, 결식학생돕기에 앞장섰다.

다솜중창단은 88년 모교 음악부에서 함께 합창을 하던 선후배 10여명이 중창단을 결성, 첫 화음을 맞춘 지 올해로 11년째. 매년 후배들이 이 전통을 이어 학내발표회 및 타학교와의 음악 교류, 기타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회원 40여명으로 규모가 커졌고 95년 첫 동문연주회를 가람아트홀서 시작한 것을 비롯해 동아대 석당홀, 피정성당 등에서 1년에 한차례 기량을 뽐내왔다. 운영규동문(45회·017-539-1028)이 기획을 맡아 동문서주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

본부동창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본부동창회는 제36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일시: 1999년 4월 8일(木) 오후 6시 30분

☆장소: 경남고등학교 국산기념관

☆의제: 1) 98년 결산보고 승인

2)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기타

※총회 직후 학교 체육관에서 단합회 거행(개별 회비 없음)

1999년 3월 5일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장 정 소 영



봄은 다시 우리 곁에...

새로운 힘이 솟게하는 봄이 피고 있다. 시련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IMF를 쫓아 버리자. 소신 깊은 동문들을 찾아 나서고 어려운 생활로 가족은 친구들을 돕는 데도 마음을 한껏 쏟자.

'고향산천'서 고향 그리며...

망향가 속 "딩더쿵"

미국 북가주 한마당 초여름 야유회 갖기로

미국 북가주지역동창회 '98 송년잔치가 지난 12월 19일(土) 오후 7시 샌프란시스코의 변두리 아담한 도시 Hayward시에 있는 한식당 '고향산천'에서 열렸다.

金榮夫회장(3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 24명이 참석, 식당을 전세낸 듯이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일행은 반가움과 즐거움을 한껏 안고 50인치 대형 TV 스크린이 있는 노래반주기에 맞춰 노래와 춤으로 회포를 풀었다.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용마가족의 친목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즐거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문·가족들은 1년만에 한자리에 만나는 기쁨을 악수와 포옹으로 표시했고, 서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격려했다.

특히 철순의 이상진선배(3회)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자리를 한층 빛내주었다. 이날 잔치는 밤 11시까지 진행됐다. 막간을 이용해 조동훈부회장(9회)은 집행부에서 내년 초여름에 야외소풍을 나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장배 쟁탈 제2회 용마 골프대회

1. 일 시 : 1999. 5. 17(月) 09 : 00

2. 장 소 : 통도 c.c. 南 코스

3. 경기부분 : 단체전(기별대항)·개인전

4. 예 약 : 50개조(200명)

5. 참가회비 ▶ 기별 단체전 100,000원

▶ 개인 50,000원

6. 참가신청

제16회 동기회 사무국 옥윤석

TEL. 248-0016 FAX. 248-4861

※ 기타 자세한 대회요강은 유인물로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주최 :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주관 : 경남중고제16회동기회

이희문·김태곤·이학문 교장 정년퇴임 “평생師道 수고 많았습니다”



이희문 교장



김태곤 교장



이학문 교장

모교에서 봉직했던 경남여고 교장 이희문, 대신중 교장 김태곤(이상 6회), 부산고 교장 이학문 등 세 은사가 최근 정년퇴임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이들 은사에게 금일봉썩을 전달,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희문은 2월 23일 오전 11시 경남여고에서 퇴임식을 갖고 40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서울대 사대(생물학과)를 졸업한 이은사는 경남고에서 제21회~25회까지 3학년 담임 등과 교감, 교장

(91.3~95.8)을 지냈다. 시교육청 학무국장 등 역임.

본부동창회 총무 및 사무국장을 십수년간 맡아 조직강화와 동문 유대강화에 진력했다.

김태곤은 2월 23일 오전 11시 대신중학교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년교단을 떠났다.

서울대 사대(수학과)를 졸업한 김은사는 92년 3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경남중 교장으로 헌신했다.

이학문은 2월 19일 오후 3시 부산고에서 퇴임식을 갖고 교단을 떠났다. 경북대 사대를 졸업한 이은사는 경남고(일반사회)에서 제22~25회까지 3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은사는 시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평



배 상 옥
(제24회·동신대 교수)

학창시절이 그리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생각하는 것이 동문이다. 지난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통해 웃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동문이며, 사회생활과 자녀 문제 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과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어려운 일에 힘이 될 수 있다.

다들 그렇듯이 항상 꽃기는 생활과 15년여를 외국에 머물다 보니, 용마리는 사실이 항상 나의 인생을 살아오는 데 많은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고마움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거주하던 달라스에는 10명 정도의 동문이 있었으나 모임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생활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마음과는 달리 동창회에 몇번 밖에 참석치 못했다. 돌아온 초기에는 형편상, 그리고 지난해는 우연히 동창회 모임과 강의시간이 겹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귀국 직전에 동기가 있는 시애틀을 방문했을 때 그곳 동문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그리 많지 않은 동문이지만 조직적이고 서로 자주 만나 서로의 문제들을 흉금 없이 나누는 것이다. 첫 대면인 나를 동문·가족 모두가 가족처럼 대해 주는 것을 보고 동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동창회란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맛볼 수 없는 순수함이 넘치는 곳이지만, 내가 들어가면서 한정된 모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창회의 진정한 발전은 심리적 혹은 물질적인 소외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외층의 문제가 동창회에 참석하는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동문들의 사정을 지역의 기수별로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부족 때문에 동창회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을 것이다. 연락이 안되는 동문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알아내는 일도 조직관리의 몫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될 때 동문간의 유대감은 강화될 것이다.

유대감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야유회, 체육·등반·바둑·낚시·골프대회, 용마의 밤 행사 등 각종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동문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능별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창회 장학금의 수혜대상 동문이나 동문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나눠 가지자.

가까지 확대 실시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동문끼리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도록 각자가 마음을 열어 주어야 한다.

동창회의 진정한 발전은 선후배와 동기생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 동문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자세에 달려 있다.

6대 그룹 임원 승진 동문

현대그룹

- ▷김형벽(8회)=현대중공업회장
- ▷김남명(15회)=현대자동차 부사장
- ▷김중성(17회)=현대자동차 부사장
- ▷이두선(20회)=현대종합상사 이사
- ▷김병협(21회)=현대건설 이사
- ▷신일규(22회)=현대정공 전무이사
- ▷박정문(24회)=현대정공 이사
- ▷이민호(25회)=현대자동차 이사
- ▷한수범(28회)=현대석유화학 이사.

삼성그룹

- ▷박수웅(16회)=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부사장
- ▷박건양(17회)=삼성전기 전무이사
- ▷이경우(19회)=삼성카드 사장
- ▷임형규(26회)=삼성전자 부사장

LG그룹

- ▷김동현(21회)=LG건설 상무이사
- ▷김갑열(21회)=LG구조조정부 부사장
- ▷정인근(23회)=LG정보통신 상무이사.

대우그룹

- ▷최영재(13회)=대우자동차 부사장
- ▷박창범(18회)=대우전자 부사장
- ▷김영순=(20회)대우자판

- ▷오성균(20회)=대우자동차 이사
- ▷이영철(21회)=(주)대우 상무이사
- ▷이동진(22회)=(주)대우 전무이사
- ▷강창익(25회)=대우전자 이사
- ▷김경철(26회)=대우전자 이사
- ▷김종도(27회)대우자판 이사

SK그룹

- ▷정석우(15회)=SK건설 부사장
- ▷이종순(18회)=SK(주) 상무이사
- ▷손성재(23회)=SK건설 상무이사
- ▷정철길(27회)=SK(주) 상무이사

효성그룹

- ▷조정래(19회)=(주)효성생활산업 대표이사 부사장

김형벽(8회) 현대중 회장 한·인도 經協委會의 주재



김형벽동문(8회·현대중공업 회장)은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韓印)경제 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인도산업박람회 한국측 대표로 활약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현대엔진공업 사장, 현대중장비 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건설기계 공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덕호(9회) 흥천교육청 교육장



이덕호동문(9회)은 강원도 교육연구원 원장 재임중 지난해 11월 17일자로 강원도 흥천교육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이동문은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춘천고 원주고 춘천여고 등 강원도에서만 36년간 교단을 지켰다. 특히 인성교육을 후학지도의 지표로 삼아온 이동문은 참스승의 자질을 지켜줌으로써 교육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차영일(13회) 부산의대 동창회장



차영일동문(13회·차영일피부비뇨기과 의원장)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호 텔롯데부산 2층 '사 파이어홀'에서 열린 부산대 의과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에 선임됐다.

부산남성과학회 회장이기도 한 차동문은 부산의대 인계의대 고신의대 외래교수. 부산시의사회 의학대상을 수상했으며 '현대인의 색스'등을 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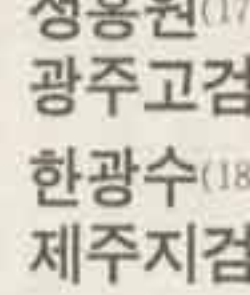
반태호(14회) 서울고검 사무국장



반태호동문(14회)은 부산고검 사무국장 재임중 최근 단행된 검찰행정직 인사에서 서울고검 사무

국장으로 영전했다. 반동문은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부산지검 등 수사관 및 수사과장 △법무부 과장 △서울지검 사무국장 △부산고검 사무국장.

이태창(15회) 광주지검 검사장



정홍원(17회) 광주고검 차장검사

최근 단행된 고검장과 지검장 인사에서 이태창동문(15회·사진 위)은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정홍원동문(17회·사진 가운데)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재임중 검사장으로 승진해 광주고검 차장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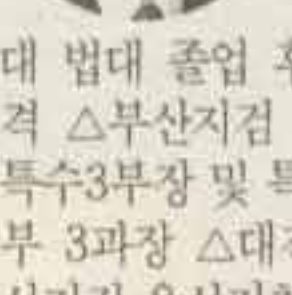
김 검사장. 이종덕(17회) 국제신문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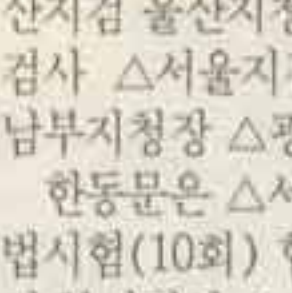
이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9회) 합격 △법무부 보호과장 △대검 공안기획담당관 △서울지검 특수3부장 △서울동부지청장 △대검 강력부장 △춘천 및 창원지검장 △광주지검 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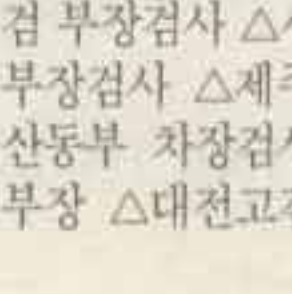
정동문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14회) 합격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특수3부장 및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 3과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검사 △서울지검 3차장검사 △서울남부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김사권(18회) 부산경찰청 경무과장



성경출(25회) 총경 승진 제주경찰청 보안과장



김사권동문(18회·사진)은 부산사하경찰서장 재임중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박탈했다.

김 광수(13회) 해少團 부산연맹장에



김광수동문(13회·한국컨테이너 부두공사 이사장)은 2월 26일 한국 해양소년단 부산연맹 제8대 연맹장에 취임했다.

김동문은 "앞으로 해양소년단을 의욕과 능력이 조화된 인력확보를 통한 조직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고 싶어하는 단체로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박기태(16회) 부산은행 감사 발탁



박기태동문(16회)은 2월 26일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은행빌딩 4층 강당에서 열린 부산은행 제42회 주주총회에서 이 은행 신입 감사로 선임됐다.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한 박동문은 장기신용은행 부장, 장은신용카드 부사장, 장기신용은행 이사·사무·감사, 국은투신은행 감사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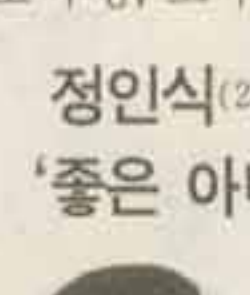
일육의약회 총회 새 회장 이길홍(16회)



제16회동기회 의사 및 약사동문 모임인 일육의약회는 1월 26일 오후 7시 서면 롯데호텔 '베네치아'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이길홍동문(소림약국 대표·사진), 총무에 최안홍(동아대 의대 교수)을 각각 선임했다.

이재연회장(인계대 보건대학원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정인식(28회) '좋은 아버지...' 회장에



정인식동문(28회·정인갤러리 대표)은 최근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동기회 기획담당 총무로 헌신하고 있는 정동문은 부산에서 7년째 화랑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자문 새 교육공동체 부산시 리포터협회장, 동래·금정지구 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 등을 맡아 문화 및 교육분야에 헌신하고 있다.

재경동창회 99년 신년회 성황

리셉션 앞서 음악회 '자랑스러운 용마상' 시상 정소영 본부회장 축배 제의... 결속 다짐

식동문(2회)등을 비롯한 용마가족들 따라 축배를 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짐했다.



재경동창회 '99신년회 리셉션 광경.

재경동창회 99년 신년회가 용마가족 신년음악회를 겸해 1월 2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동문·가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시간 30분에 걸친 음악회(금난새 지휘·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 '자랑스러운 용마상' 시상(사회 구분홍 MBC TV 해설위원·20회)과 리셉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우민재경회장(10회·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의 시대는 돈과 권력보다는 아름다움이 중시되는 시대"라며 용마가족의 건승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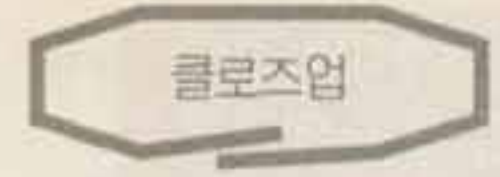
안회장은 이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명예 선양에 크게 기여한 한규상동문(10회)등 23명에게 '자랑스러운 용마상'을 수여했다. 또 재경총무로 2년간 헌신했던 김용찬동문(26회)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정동식 재경명예회장(1회)과 전남 장흥에서 예년처럼 상경한 최형

용마상 수상자 명단

- ▷한규상(10회·울촌화학 대표)
- ▷윤대욱(10회·SK옥시케미칼 고문)
- ▷유홍중(11회·대한양궁협회 회장)
- ▷정문화(13회·국회의원)
- ▷공영규(13회·형사정책연구원장)
- ▷황홍석(14회·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한수길(14회·롯데제과 대표이사 부사장)
- ▷천신일(15회·대한레슬링협회 회장)

- ▷황장도(15회·대한화학 대표이사 사장)
- ▷박수용(16회·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 ▷강영주(16회·한국은행 감사)
- ▷안철(18회·동성프로덕션 대표)
- ▷조정래(19회·효성 대표이사 사장)
- ▷신동인(19회·롯데제과 쇼팽 대표이사)
- ▷조영철(20회·삼성화재 사정서비스 대표이사)
- ▷이윤택(25회·극단 연희단체거리 대표)
- ▷기타 7명.



이희문 경남여고 교장

증조부 한시집 '화하유고' 정년퇴직 앞두고 '화하시집'으로 출간...10년 걸려 번역

모교(경남고) 교장을 거쳐 경남여고 교장을 끝으로 최근 정년 퇴임한 이희문동문(6회)은 선대가 남긴 유고집을 10여년간 걸쳐 번역, 교단을 떠나기 직전에 시집으로 펴내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침 일찍 서릿바람 옷과 갓이 차갑고/단풍잎 국화꽃이 일시에 파리하네/늙은 탄식 울기 괴로워 회머리 재촉하고/따스한 술에 붉기운 돌아 얼굴이 불그레하다/ 북쪽 땅이 굳어지며 얼음 얼기 시작하고/시월 보름 하늘이 맑아 둥근 달이 떴구나/산 속의 집 요즘엔 찾는 벗 없으니/뜰에 있는 소나무와 곧은 절개 함께 하리.' '초겨울 @동' 전문.

이희문은 증조부인 이병수(1861~1930)의 한시(漢詩)집 '화하유고(華下遺稿)'를 번역하기 시작, 10여년의 고생 끝에 '화하시집'으로 출간,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 지인들에게 전해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화하공(華下公) 이병수의 시는 길으로 보기에는 산수 자연과 전원풍경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 내면에는 망국의 비통함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면학을 당부하는 일제 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고뇌의 회구가 흐르고 있다. 그는 당대의 석학들은 물론 장지연 신채호 등 진보적 사상가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조부의 유집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낸 이희문은 "선대의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이제사 햇빛을 보게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게 돼 다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희문은 경남고 교장시절 옛 과학관을 열고 그 자리에 5층 현대식 교사를 신축하는 등 모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본부동창회 총무와 사무국장을 십수년간 맡아 조직활성화와 동문 유대강화에 헌신,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창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엔젤투자조합 전국최초 부산설립

(주)금강... 대표 하희진(16회)

하희진동문(16회·사진)이 유망벤처기업에 대해 자본 및 경영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조합'을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창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엔젤투자조합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난에 애를 먹는 유망벤처기업을 자본과 경영 등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정확한 심사분석과 장래성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원

의 수익을 환원하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엔젤클럽에서 진일 보한 회사입니다" (주)금강엔젤투자조합 대표로 취임한 하희진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초량동 교원공제회관 1층에서 수많은 동문들을 비롯해 지역상공인과 자본투자가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정식 영입에 들어갔다. (주)엔젤투자조합은 자본금 10억

원에 조합원 30명으로 창립했고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

하희진은 "올해 상반기중에 증자와 주주차입 등을 통해 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익사업인 건강숙 개발, 세계적인 버섯 권위자인 일본 스카코시 박사의 숙성버섯 재배기술 도입, 계수를 비료와 정수로 만드는 오수정화조 판매 등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엔젤투자관련 모임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산의 1개를 포함, 전국에서 6개가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투자조합의 형태를 띤 것은 (주)금강엔젤투자조합이 처음이다.



제9회 재경동기회 사무실 오픈

제9회재경동기회 사무실 현판 및 개소식이 2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96-5 4층 현장에서 동문 45명의 축하 속에 열렸다.

김종호회장이 주재한 이날 사랑방 오픈 축하연에서 동문들은 한결같이 동기회사무실이 험담와 정보교환의 광장일 뿐 아니라 우정을 주렁주렁 열게 하는 사랑방이 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12회 임원 개선 새 회장 이용언

제12회동기회는 1월 2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라벌관광호텔 '가야홀'에서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李龍彦동문(동아의료원 약제국장·동이대의대 교수·사진)을 선임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趙哲元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신년회를 겸해 열렸는데, 전남 구례 대구 진주 거제 밀양 등지에서도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가족의



제12회 동기회 정기총회 모습. 전남 구례 동지의 동문들도 참석해 더욱 번가워 하고 있다.

건승축원과 정년퇴임한 벗들에게는 위로를, 사업을 하는 벗들에게는 IMF를 이겨낼 것"을 당부해 행사장을 열기로 달렸다.

앞으로 2년 동안 집행부를 이끌어 나갈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李龍彦
- △부회장=南基鎔(문교산업 대표·수석) 金富煥(부산시의회 사무처장) 金準鐵(협성검정 대표) 李昌大(대웅토건 부사장·총무담당) 張東錫(부경대 교수) 鄭大植(대동벽지 전무이사·공장장)
- △감 사=吳世正(전 연제구 부구청장).

제21회 회장 전기환



제21회동기회는 1월 29일 '진미식당'에서 '99 정기총회를 열고 全琪煥동문(혜성병원 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姜洙慶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한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 구성은 全신임회장에 위임했다. 全신임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친목과 상부상조 분위기의 동기회가 절실하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제25회 이사회 강석철 새 회장 내정



제25회동기회 이사회가 2월 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호텔 영빈관에서 열려 차기 회장에 강석철 동문(동서대재단 사무국장)을 선임, 이달중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문석구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주요의안 조율, 새 집행부 구성, 동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제26회 회장 장경재



제26회동기회는 2월 2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구 거제 동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베뉴에서 동문·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장경재동문(대동병원 방사선과장·사진)을 선임했다. 박정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용건회 신년회

회지 13호 발간

부산 일원 건설업계 동문들의 친목 단체인 용건회(龍建會)는 1월 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원미원'에서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박봉흠회장(11회·한화종합건설)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자유토론과 여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문들은 토론을 통해 △회원간에 더욱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폭넓게 교환하는 것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용건회는 '용건회보' 제13호를 1월 2일자로 발행했다.

을 개설했다.

한편 클럽 집행부도 개선, △26악(등산) 회장 이근범·총무 하성봉 △26골(골프) 회장 최 현·총무 김광대 △26기(바둑) 회장 장종언·총무 권해국 △26테(테니스) 회장 김상현·총무 이종인동문이 각각 선임했다.

제29회 회장 이석조



제29회동기회는 1월 2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월드뷰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李石祚동문(웨스턴레스토랑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金大旭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이날 동문들은 NBC 단란주점에서 회포를 풀어 우정을 돈독히 했다.

△회 장=李石祚
△부회장=柳光烈 朴基贊 徐治弘 李相龍 韓輝哲
△감 사=李岡勳
△총 무=權斗進
한편 동기회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7시 부산 민락동 '우리장맛집'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본부 '용마의 밤' 협찬 동문 명단

- △김근준(1회·경남학원 원장)=카메라 1대
- △정수봉(1회·전 동아대 재단 이사장)=카메라 1대
- △권오현(1회·경성대재단 이사장)=카메라 1대
- △정상천(4회·국회의원)=TV 2대
- △우명수(5회·부산예술문화대 학장)=카메라 1대
- △주범국(5회·전 증권예탁원 사장)=카메라 1대
- △6회=믹서기 1대·가습기 1대
- △7회=혈압계 1대
- △8회=커피메이커 1대·면도기 1대
- △9회=커피메이커 1대·다리미 1대
- △10회=커피메이커 1대·가습기 1대
- △11회=다리미 2대
- △이세영(11회·삼익제약 대표)=브러시정수기 12대
- △오원수(11회·대한제강 회장)=30만원
- △안강태(11회·대전조선 대표)=제빵기 2대
- △유홍수(11회·국회의원)=고급 카세트 1대
- △12회=커피메이커 1대
- △13회=인삼정 2개
- △노수덕(14회·금양 회장)=커피메이커 1대·가습기 1대
- △15회=믹서기 1대·가습기 1대
- △16회=다리미 1대·가습기 1대
- △17회=압력솥 1개
- △18회=구두상품권 1장
- △19회=낚시대 2세트
- △권철현(19회·국회의원)=테니스 라켓 2개
- △김형오(20회·국회의원)=상품권 1장
- △21회=커피메이커 1대·가습기 1대
- △22회=여성화장품 1세트
- △23회=커피메이커 1대·면도기 1대
- △24회=구두상품권 1장
- △김무성(24회·국회의원)=열탕어포트 2개
- △25회=커피메이커 1대·가습기 1대
- △26회=커피메이커 1대·가습기 1대
- △28회=스탠드 1개·전기포트 1개
- △이승호(29회·광복페션 사장)=상품권 1장
- △30회=면도기 2대
- △31회=커피메이커 2대
- △33회=카세트 1대
- △34회=수입차 2세트
- △36회=벌치 2부대
- △39회=보디 샴프 2개
- △43회=상품권 1장



울산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행사 광경

제7회동기회 송년회

제7회동기회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석화그릴'에서 송년회를 열었다.尹晉憲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저무는 무인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게 생활을 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재경8회 바둑대회 우승 신현주 차지

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이창규)의 바둑동호인 모임인 팔선회는 1월 16일 오후 1시 제일기원에서 신년친선대국을 벌였다.

이유환회장이 주관한 이날 대국에서 신현주동문이 우승을, 이종수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회장을 비롯해 이종수 조석제 배주원 신현주 이창규 강성태동문 등이 실력을 겨뤘다.

골프우승 추경석·장은아

한편 골프동호인 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12월 3일 안성컨트리클럽에서 98년대회회를 열었다.

이날 남자부 우승은 추경석(86타 2언더 핸디14), 준우승 홍기성, 행운상 조운계동문이 차지했다. 여자부는 장은아씨(윤태영동문 부인)가 우승을, 김정화씨(이창근회장 부인)가 행운상을 수상했다.



들들산우회 정다운 모습. 태백산 천재단에서 시산제를 올리기(氣)가 넘치는 듯하다.

태백산 천재단서 시산제

제22회 들들산우회

제22회동기회 들들산우회(회장 장영근)는 1월 31일 태백산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동문·가족 42명은 이날 오전 7시 부산진역 앞에서 관광버스로 출발, 오후 12시30분 '유일사'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아이젠과 스페츠를 착용한 채 산행에 돌입했다. 선두는 남백우동문이, 후미는 조승일산행대장이 맡아

잘 보살핀 덕택으로 일행은 유일사를 거쳐 천재단 3.4km 눈덮인 미끄러운 등산로를 2시간30분 올라갔다. 천재단에서 구자룡회장, 김원주초대산우회장, 장영근산우회장, 조승일산행대장 등이 주재한 시산제를 올렸다. 일행은 오후 5시30분 하산, 막걸리와 손두부로 배를 채우고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사전에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단합회를 벌였다. 일행은 다음날 새벽 1시30분 부산에 도착.

울산 '용마의 밤' 큰잔치

노래대상 김정대(19회) 부인·행운대상 하봉의(16회)

울산지역동창회(회장 김익도·12회)는 지난 12월 19일(土) 오후 6시30분 울산 코리아호텔 대연회실에서 98년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조준탁수석부회장(13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인사에 이어 정소영본부회장(6회) 격려사, 국회의원인 차수명지역고문(12회)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사회 박홍조 사무국장·22회).

본부동창회에서는 정회장을 비롯해 최두호사무국장(11회)과 김병수총무(22회)등이 참석, 축하했다. 또 부산고 울산동창회(회장 신현우)와 부산연고 울산동창회(회장 이필에)에서 화환을 보내와 행사를 더욱 빛

내주었다.

순수일수석총무(25회)가 사회를 맡은 제2부 여흥 장기 및 노래자랑에서 대상은 김정대동문(19회) 부인이 차지, 부상으로 냉장고를 탔다. 최우수상은 김광경동문(33회) 부인 최영미씨가 전자랜지를, 우수상은 박홍조동문(22회) 부인 유영숙씨와 김동진동문(25회) 부인이 각각 쌀통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박태영동문(5회) 부인이 곰술을, 인기상은 추세경동문(44회) 부부가 듀엣으로 공기청정기를 수상했다.

특히 행운대상은 하봉의동문(16회·정소영본부회장 협찬 TV)이, 행운상은 김광경동문(33회) 부인과 권정덕동문(19회) 부인(각각 차수명의원 협찬 TV)이 차지했다.

금정산서 "안녕·풍요" 빌어

제14회 산신제... 새 회장 안상환

제14회동기회(회장 鄭時榮) K14 등산회는 1월 3일 부산 금정산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새해 첫 등산대회를 열었다.

林宜秀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등반은 부부동반 20명이 참석, 금정산 고당봉에 오른 후 고모당에서 산신제를 올렸다.

일행은 범어사 '밀양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안相煥동문(구덕합동법률사무소 공증실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용마산악회 이사회 회장 정일성(16회) 선임 회지 5호 펴내



용마산악회 99년 정기이사회가 1월 25일 오후 6시30분 서울 다동 '부민옥'에서 열려 정일성동문(16회·성지상사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임, 총회 인준을 받기로 했다. 허광길회장(15회)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주요 의제 심의를 통해 △시산제 및 총회 3월 7일 △등산의 날 4월 18일 △1박2일 산행 6월 12~13일 △정기산행 9월 5일·10월 3일·11월 7일 등 올해 산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산악회는 회지 '龍馬山岳會' 제5호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회지는 '산상일기'(회장 許光吉), '산악회 소식', '기별산악회 소식', '회원 산행

기'(13회 허 훈·15회 유인기·27회 윤원호) '산행 초심자와 베테랑 차이점'등으로 엮여졌다.



'용마산악회' 제5호 표지

제29회 교수협의회 회장 柳光烈 선임



제29회동기회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6시 부산역 앞 증국음식점 사해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柳光烈동문(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金錫潤회장(부경대 해양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20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柳山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회와 교수모임의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총무에 李陽東문(부산대 수학과 교수)을 지명했다.

영도복음신경인과 내과 의원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고신외과대학 병원」 및 「갈매리병원」 「세강병원」 신경외과 과장 재직시 베풀어 주신 후의에 힘입어 영도 복음 신경외과·내과 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열의를 다해 진료에 임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영 (36회)



부산시 영도구 동남1동 328
전화 : 051)405-6166~7
휴대폰 : 011-841-6167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부산 금정산에서 제100차 산행의 행운을 얻은 제27회 동문·가족들이 기념을 나누고 있다.

8년4개월만에 "감격의 100차 산행" 성공

제27회동기회(회장 김태우·번호사) 산우회는 2월 21일 부산 금정산에서 동문·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차기념 등산대회를 열었다. 산우들은 90년 11월에 첫 산행을 시작한 이후 8년 4개월 동안 한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한번씩 산에 오른 끝에 이날 100차 산행의 감격을 누렸다.

이날 100차 산행은 가족들과 함께 산을 타기 위해 다소 가벼운 코스인 금정산으로 정했다. 오전 9시30분 동래 식물원 앞을 출발한 일행은 케이블 카 종점을 향해 산을 오르기 시

27회 금정산 기념등반 매달 한차례씩 기록 동창사회 새로운 화제

작, 케이블 카 종점 뒤편 능선~망루~산성고개~동문~북문까지 약 3시간30분을 강행군했다. 김현수동문 등 몇몇은 고당봉을 도전하기도. 북문에서 범어사로 하산한 후 박장현선배(26회)의 '북한음식' 전문점을 수소문했으나 허탕을 치고 주차장 아래 식당에서 닭백숙과 파전 등으로 회식

을 갖고 화합과 결속을 다짐했다. 100차 산행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숨은 일꾼들의 헌신이 많았다. 그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1백% 참여한 장기념동문은 친구들의 건강과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참여 독려 △산행준비 △연락 △예산 집행 등을 잘 해냈다. 97% 참여율을 기록한 강봉호동문은 초창기 산행 때부터 △도시락 주문 △무거운 도시락 및 된장국통 등 운반 책임, 강태영동문은 △산행안내 △인솔 △산행중 동문들의 안전도도, 이밖에 수많은 동문들의 협력 등이 돋보였다.

경남고 53회 졸업식 거행

동창회장상 김현수·이제현군 받아 서울대 합격 이상민군 등 7명에 장학금

경남고 제53회 졸업식이 2월 11일(土)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려 새내기동문 6백23명을 배출시켰다(졸업생 총 2만6천37명).

金鳳吉교장(8회)이 주재한 졸업식에는 전 교직원들 비롯해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鄭昭永본부동창회장(6회)을 위시한 임원 다수와 수많은 동문 등 1천5백명이 참석했다.

鄭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졸업생들은 큰 뜻을 세우고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배양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 돼야 한다"며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업성적이 뛰어난 김현수군(3-4)이 동창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울대에 합격한 이 흰(3-1, 영문학과) 이상민(3-4, 법학부) 신경필(3-8, 조선해양공학부) 박우진(3-9,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김명원군(3-10, 자연과학부 기초과학계) 등 5명과 학생회장 김현수 및 부회장 김정훈군(3-11) 등 7명이 용마장학금 각 50만원씩을 받았다.

또 진규민 제성욱군이 경문회장상(회장 김선동·10회·남부교육청장)

을, 부산대 의대에 합격한 이희성군(3-6)이 최성호(17회·피부비뇨기과의원장) 장학금 1백50만원을 받았다.

경남중 56회 졸업식도

한편 경남중 제56회 졸업식이 2월

12일(金) 오전 10시30분 학교체육관에서 열려 4백84명의 졸업생을 새로 배출했다(총 2만9천4백75명).

이날 졸업식에는 金聖贊교장(12회)을 비롯해 전 교직원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鄭昭永본부동창회장(6회) 등 임원 다수와 수많은 동문 등 1천3백여명 참석했다.

이날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제현군(3-6)은 동창회장상을, 정현석(3-1) 박수준군(3-2)은 경문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2월 11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남고 제53회 졸업식 광경.

송승준(경남고), 美 레드삭스 입단 확정

계약금 10억8천만원 올해 경남고를 졸업한 우완 정통파

송승준(19)이 미국 메이저리그 레드삭스에 입단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돕읍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동창회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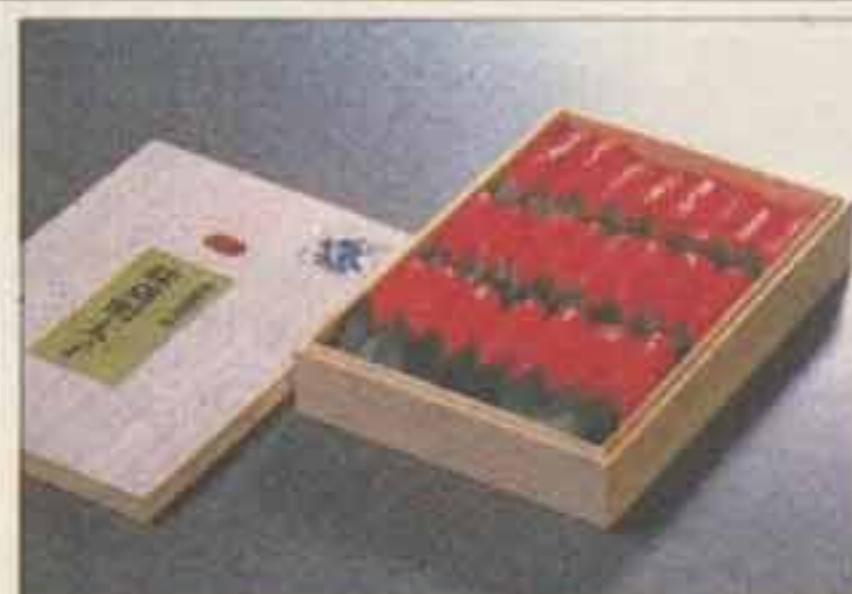


슬라이드/흑백/네가/와이드 종합 전문 현상소

●작품사진전문

대표이사 朴龍一 (16회)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8 (주택은행 부산지점 옆)
T. (051)245-1537~8, 1213~4
F. (051)245-1210



대경명란(주)

강창수(21회)

부산: 전화 255-7211~3
팩스 255-7214
서울: 전화 593-6163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단지내(14호)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051)294-0055
FAX: 051)294-0056

돋보기

봄철 눈병 예방

올해는 황사현상이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에는 꽃가루나 황사 등으로 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진다. 특히 알러지성 결막염 등은 철저한 눈의 관리가 요구된다.

알러지성 결막염

봄철에는 꽃가루나 풀, 집먼지, 황사, 동물의 털이 많이 날아다녀 이로 인한 알러지성 결막염이 잘 생긴다. 이 증상은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충혈이 있고 끈적끈적한 눈곱과 눈물이 나온다. 눈을 비비면 결막이 잘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낫지만 심하면 냉점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 물

질을 찾아내어 피하는 것이다.

황사와 눈병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황사가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계절은 4월경. 이 황사는 꽃가루와 함께 봄철 안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황사가 눈에 들어와 결막을 자극하여 손상을 주고 바이러스균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감염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증상은 알러지성 결막염과 비슷하나 눈 속에 모래알이 든 것과 같은 이물감과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병준 제32회 삼성안과의원장

황사·꽃가루 등 피하도록 가려워도 비비지 않아야

치료는 이렇게

치료는 예방이 최선. 외출 후 식염수로 눈을 씻어주거나 인공눈액을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렌즈를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으면 자극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송승준(사진)은 미국 진출을 주선해준 박찬호의 에이전트인 스티브 김을 통해 보스턴 레드삭스에 계약금

90만달러(한화 약 10억8천만원)를 제시함에 따라 미국행을 결심한 것. 롯데자이언츠 입단을 일찌감치 포기했던 송승준은 <미국행> <동국대 진학> 등 2가지 길 앞에서 고민해 오다 동국대행마저 '없었던 일'로 하고 급선회했다.

송승준은 그동안 클리블랜드 인디

언스와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3개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왔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었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최고액을 제시함에 따라 송승준을 낚는 데 성공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현재 조진호와 김선우 등 2명의 한국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진호가 지난해 입단 첫 해에 메이저리그까지 오르는 괄목한 성장을 보이자 한국 야구의 잠재력에 높았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송승준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신민기(경남고) '이영민타격상' 2관왕



미완의 대기 경남고 2루수 신민기(19·사진)가 제41회 이영민타격상을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민기는 58년 이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2관왕이 됐다. 2월 25일 야구인의 밤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

지난해 21경기에 출전, 96타석에 나서 90타수 42안타, 4할6푼7리의 고교 최고 타율을 보인 신민기는 역대 7위 타격성적(역대 최고 타율은 92년 배명고 노상진의 5할2푼2리). 신민기는 한화에 99년도 신인 2차 3순위로

지명됐고 한양대 진학을 굳힌 상태. 이영민타격상은 배재고와 연희전문 학교를 나온 고(故) 이영민씨의 일제시대 뛰어난 야구 선수 생활과 해방 이후엔 대한야구협회 창설에 참여, 한국야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경남고 '우수단체상' 야구부문 유공

모교(경남고)는 2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우수경기단체상(야구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봉길교장(8회)과 조정문야구부장(38회), 선수 5명이 참석했다.

홈페이지 등 이용 희망

약사·수필가 오형철(16회)

경남 김해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자 수필가인 오형철 동문(16회)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천리안문단방을 소개했다.

오동문은 96년에 천리안문단방을 개설했고 지난해 8월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93년 동안, 한국문인협회 회원인 오동문은 수필집 '엘리베이트에 갇힌 여자'를 출간했다.

"제가 쓰는 글을 통해 동문들과 유대를 맺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동문들과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싶어 홈페이지 등을 개설했습니다."

오동문은 '인연'이란 방에 수필을 싣고 '호수가 있는 풍경'에는 생활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다.

천리안은 문단방:go debut 12번 콩트, 에세이, 동화란에 들어가서 2번 인연이란 방을 두드리면 된다.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et/~zpdeb137 (전화:0252-333-2125)

'경고학보' 42호 펴내

본부회장 격려사 등 다채로운 내용 엮어



'경고학보' 제42호(1999년 판)가 2월 7일자로 발간됐다.

올해 경고학보는 △권두언 '봄을 낳는 겨울'(학교장 김봉길) △격려사 '선진 한국의 주역이 되자'(동창회장 정소영)를 비롯해 △용마는단 '교육과 미래' △특집 1 '광고의 역사와 현대 광고의 동향' △특집 2 '야구부 스페셜' △특별기고 '그는 바다로 갔다'(소설·교사 최영구)등 교사 문예 마당 등이 짜임새 있게 엮여져 있다.

또 △재학생들의 시, 소설, 독서감상문, 영화감상문, 수필 등이 다채롭고 △졸업생 특집 회상기인 '학급순례'(역대 명유언집) 등이 읽을 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

4회 문택상 회장 유임

▷재경 4회=지난 12월 16일 오후 6시 다동 부민옥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문택상회장(사진)을 유임, 25명 참석.

이날 총회는 2000년 5월 동기회 졸업 50주년을 맞아 부산과 협의해 기념문집을 발간기로 결의.

제5회 정인조 회장

▷재경 5회=지난 12월 28일 오후 6시 북창동 '일품향'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정인조동문(합신 대표·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 정신임회장은 동기회 사무실 마련 및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

제7회 전연호 회장

▷재경 7회=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 30분 스킨디나비아 클럽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전연호 동문(HED 회장·사진)을 선출. 또 부회장에 신환호, 박형대, 총무에 천여수동문을 각각 선임

제8회 훈훈한 총회

▷재경 8회=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 서초동 '정일품'에서 이창규회장의 주재로 정기총회 겸 송년회. 부부동반 50명 참석. 김계곤·박정희 두 은사 내외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이정윤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안명필 김길수 하일청 세 동문의 명복을 비는 묵념등으로 진행.

특히 이규은동문('삶과 꿈' 대표)이 고(故)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암송, 분위기를 아름답게 채색. 이동문은 지난 9년간 시 5백수를 암기한 기록보유. 2부 여흥은 배우원 동문 사회로 진행.

제9회 김종호 회장

▷재경 9회=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소곡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종호동문(유한화학 대표·사진)을 선출. 40여명 참석.

또 부회장에 최성일·이선호동문을, 감사에 박현용동문을 새로 뽑고 총무 김기현총무를 유임시킴.

제10회 김상태 회장

재경 일부 동기회 임원 개선



▷재경 10회=지난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스포타임에서 동문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김상태동문(덕인환경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 또 수석부회장에 차동렬, 부회장에 김충무에 서진홍동문을 뽑고 이병철 감사 유임. 특히 김용찬동문이 40만 원 상당의 의해서 10권 협찬.

제16회 설희순 회장

▷재경 16회=1월 27일 오후 6시30분 선릉 '상계리제터'에서 동문과 부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개최(사회 공명규). 설희순 회장은 노정현 직전회장과 서정식 직전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3부 여흥은 양화운동문 사회로 진행. 특히 부산에서 옥윤석동기회사무국장 이 상경, 우정 과사.

한편 동기회는 지난 12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설희순(사진), 총무에 신은조동문을 선임.

제18회 김중조 회장

▷재경 18회=지난 12월 18일 프리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김중조동문(성원에드워드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에, 김지호(참스튜디오 대표) 박형훈(선호상사 상무) 오세복동문(태영사 대표)을 부회장에 각각 선임.

제23회 구자섭회장 유임

▷재경 23회=지난 12월 11일 오후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동문·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구자섭회장(사진)을 유임시킴.

총회는 내년 홈커밍30주년을 위한 모금액 3천만원을 특별예산으로 승인. 특히 대구의 허연옥장군이 협찬한 특별찬조금으로 도서와 문화상품권을 구입, 부인들에게 선물.

제26회 최낙준 회장 유임

▷재경 26회=지난 12월 5일 오후 5시 신라호텔에서 52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최낙준회장(최치과의원장·사진)을 유임시킴.

최회장은 박원세 김영수 정수진동문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

이날 동문들은 중3때와 고3때의 앨범에 수록된 사진을 명찰에 같이 넣고 반 번호까지 달아 부인들로부터 탄성이 쏟아지게 했음.

제28회 노태욱 회장

▷재경 28회=지난 12월 2일 오후 7시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노태욱동문(강남대 교수·사진)을 신임회장에, 박병찬동문(성원지질)을 총무에 각각 선임.

노신임회장은 지난 여름 성남시 검도협회장대회 자연부 우승 획득.

제29회 정기조 회장

▷재경 29회=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능동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서 동문·부인 등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정기조동문(중앙대 야구감독·사진)을 신임회장에, 이성욱동문을 총무에 각각 선임.

많은 동문들이 기념품을 협찬해 참석자 전원이 선물을 받아갔고 최우영 유시적 조병제동문이 처음 참석해 뜨거운 박수를 받음.

허남진회장 가족은 선물구입과 포장을 도맡아 수고가 많았다. 특히 양길용동문 20만원, 엄수돈동문 10만원, 이성욱동문 10만원, 안근식동문 1백만원 협찬.

제31회 서민성 회장

▷재경 31회=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 '인터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서민성동문(텍스웰 대표·사진), 총무에 추정욱동문(인터뷰 대표)을 각각 선임. 20여명 참석.

제32회 홍순문 회장

▷재경 32회=지난 12월 2일 세종문화회관 뒤 하이마트뷔페에서 5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홍순문동문

(삼성화재 용마대리점·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이날 총회장은 홈커밍데이 결산보고 승인 후 김영준 박종호 남기영 김용태동문에게 '자랑스런 동기생패'를 수여.

제33회 손학근 회장유임

▷재경 33회=지난 12월 5일 오후 5시 인사동 '우리소셜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홈커밍데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손학근회장(사진)을 유임시킴.

손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부산에서 윤성국회장과 김재선 총무 대전에서 남승훈동문이 참석했고 김민수 김성남 기제도 임용성동문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 즐거움이 넘쳤음.

제36회 박영철 회장

▷재경 36회=지난 11월 26일 압구정동 '산성가든'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영철 동문(조선일보 기자·사진)을 신임회장에, 김성현동문을 홈커밍데이 추진담당 총무에 각각 선임. 이날 총회는 4년후 홈커밍행사 준비기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각출하기로 결정.

제37회 남무현 회장

▷재경 37회=지난 1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남무현동문(베리텍 대표·사진), 총무에 김상덕동문을 선출. 이날 모임은 △동기회 수첩을 제작 △지역 및 근무차별 소모임과 가족동반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결의. 지역별·근무차별 연락 간사=조정화 정창남 김대중 김재범 안명도 남무현 등 지명.

제40회 김정현 회장

▷재경 40회=지난 12월 10일 여의도 '신동양대반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현동문(개봉한의원 장·사진)을 신임회장, 부회장에 문형욱동문을, 총무에 장성민동문을 각각 선임.

제41회 조재용 회장

▷재경 41회=지난 12월 11일 'One Shot 행진' 송년모임을 열고 동기회활성화를 위해 적극 성원할 것을 결의. 또 지난 10월 15일 강남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조재용동문(네덜란드생명·사진), 총무에 이영철동문을 각각 선출.

제10회 동기회 임원명단

회 장 高 光 守
부 회 장 金 東 旻
李 宣 衡
감 사 朴 春 石
趙 鏞 琪
총 무 徐 定 喆

당연직이사 金 基 訓
金 宜 東
金 鏞 桂
文 昌 海
朴 址 浩
方 奉 佑
徐 鳳 源
吳 剛 旭
尹 富 煥
尹 泰 憲
李 正 浩
李 在 淳

李 現 洙
全 秉 翼
鄭 承 錫
許 承 錫
許 英 燮
이 사 姜 平
金 鍾 淳
金 琪 祐
金 大 元
金 相 局
金 相 圭
金 容 元

金 仁 喆
金 鐘 源
金 漢 祚
金 炫 赫
金 柱 丸
朴 裊 吉
卞 益 淳
徐 守 圭
薛 大 鉉
申 鐘 寬
安 大 守
尹 相 錦
李 相 滢

李 奉 源
李 相 培
李 元 弘
李 義 道
鄭 鐘 萬
田 英 大
趙 趙 洙
趙 亮 濟
千 亮 旭
崔 晉 道
崔 海 萬
韓 興 錫
洪 起 錫

백두대간 대종주

구덕산우회

> 1 <

지리산~덕유산

구덕산우회(회장 이창홍·19회)가 97년 3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8개월간 '국토의 동맥' 백두대간 종주를 성공시켰다. 백두대간 종주는 여는 산악단체와 달리 회원들이 단위로 산중야영을 감행하면서 2박3일 또는 3박4일씩 중구간 종주를 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행대장으로 활약한 오기현동문(20회)의 백두대간 종주기를 연재한다.



오기현
제20회
구덕산우회
산행대장

꿈에도 그리던 '백두대간 종주'. 97년 3월, 우리 구덕산우회 19명의 결사대(?)는 감격을 억누르며 지리산의 으뜸인 천왕봉(1,915m)에서 대망의 출정식을 거행했다. 9백50km 대장정의 출발점에 서있었다.

전날 어둠이 깔린 치발목산장에 도착한 우리는 무뚝뚝한 표정의 '영원한 산장지기' 민병태가 마련한 전야제를 만끽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지금부터 내년 10월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나오자는 몇명이나 생길지?' 등등으로...

"천왕봉, 너의 품에 안긴 지 어언 35년. 그동안 1백번도 더 올랐던 너

9백50km 도전... '비와의 死鬪'

였지만, 오늘은 더욱더 너의 우뚝함에 고개를 숙이며 한잔의 술을 올리니 우리들의 장도에 축복과 무사안전을 기원하노라."

천왕봉을 뒤로 했다. 장터목을 지나고 세석평전을 거쳐 영신봉(1,651m), 선배샘을 돌아드니 어느새 벽소령. 우리는 새로 지은 산장에서 둘째날 잠을 청했다.

3일째 산행은 연하천, 토기봉(1,533m), 노고단(1,501m)을 잇는 이른바 '신작로'를 만나 일사천리의 행군에 들어갔다. 6시간의 산행 끝에 성삼재에서 '역사적인' 1차 구간 종주를 마쳤다.

생생한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대간종주의 희망이 느껴졌다. 한가지 마음에 걸린 것은 이창홍회장의 무릎고장. 젊은 시절 사고로 다친 무릎이 3일간 지리종주에 꽤나 고통스럽게 보였다.

97년 4월 우리 종주대원들은 성삼재~만북대(1,433m)~정령치~고리봉(1,304m)~수경봉(804m) 여원재까지 2차 구간을 답파했다. 남원 주촌마을을 지날 땐 선인들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그은 데 대해 감탄 연발을 한 기억이 새롭다. 평야의 한쪽 눈물은 섬진강으로, 다른쪽 눈물은 경호강과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물의 분수령의 오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7년 5월, 3차 산행은 여원재~고남산(840m)~매요~사치재까지 한국의 전형적인 야산지대를 헤쳐 지나갔다. 매요마을 뒷산을 지나면서 대간 마루금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

97년 6월, 4차 구간 사치재~봉화산(919m)~백운산(1,273m)~육십령 땀 뚝 20명의 대원들이 산중 야영기로 하고 참여, 출발 때부터 배낭



속리산 천왕봉에서 포즈를 취한 구덕산우회 회원들. 천왕봉 정상은 한강 금강 낙동강 등 남한의 3대강의 분수령이다.

천왕봉서 대망의 출정식 광대치 올라 첫 캠프파이어 산꾼 20명 우정 "활활"

이 어깨를 짓눌렀다. 첫날 봉화산에 올라보니 거처는 지리산과 다음 산행지인 덕유산봉이 아스라히 눈앞에 다가선다. 광대치야영지에 도착해 텐트 6채를 급히 치고난 뒤 대간종주 이후 처음으로 캠프파이어를 올렸다. 모닥불과 함께 이글거리는 우정은 한잔의 술, 영원한 산친구들의 산노래속에 이정표를 새워나갔다.

다음 날 숙취상태에서 혁혁대는 대

원들을 이끌고 함양 백운산을 오르자 어젯밤 야영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김준영회원(28회)이 게면찍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영취산을 지나 2일째 무명고개 야영지에 도착하니 김명균(20회)과 출발전 발을 다쳤던 안형수총무(24회)가 위스키와 각종 먹거리를 한아름 안고 우리를 맞이했다. 산행식구가 모두 26명으로 불어났다. 3일째 육십령으로 향하는데 아침부

터 부슬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이제부터 비와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스쳐갔다.

아니나 다를까. 97년 7월, 5차 구간 덕유산 종주는 비에서 시작해서 비로 끝났다. 20명의 대원들이 육십령 민박집을 떠나 덕유산 자락에 당도하자마자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빗속을 뚫고 산행에 들어간 우리들이 장수덕유, 남덕유(1,507m)를 거쳐 월성재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빗물 반, 라면 반'이었다. 샷샷봉 무룡산(1,491m)을 힘들여 지나 동업령 능선에 텐트 6채를 치니 비바람은 그칠 줄을 모른 채 더욱 더세지기만 했다.

다음날도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속에서 텐트를 걷고 배낭을 챙겨 산행에 나서니 대원들 모습이 영락없는 생쥐풀.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m) 직전에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빼재(신풍령)에 도착하니, 한 대원이 "이번 산행에서 이를 동안 맞은 비가 평생 맛을 비보다 많다"고 푸념을 토해냈다.

하산길 황혼녘에 비가 멎자 저 멀리에 쌍무지개가 떴다. '남덕유~북덕유 향적봉까지 침실을 러셀하며 참 고생도 많이 했었지' 하염없이 하산하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동기생들인 김대원 김상권 이종렬과 필자의 아우 기록(23회)이 산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장정 기획

조겨울 선술집서 의기투합
총80개 소구간 설정
월1회 3~4코스 탐파기로

△백두대간 전체를 80여개 소구간으로 나눈다.

△월 1회 산행에 3~4개 구간을 답파한다(이는 단독산행이나 안내산행과 다른 '종주간 동반' 임).

△텐트와 침낭까지 포함된 15~25kg 무게의 배낭을 매고 3~4일씩 대간 능선을 탄다.

이같은 3대 원칙을 골간으로 전반적 기획이 마련됐다. 이후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들어갔고 일정표를 짰으며 코스별 지도를 정리했다.



(주)금강엔젤투자조합

고객과 함께 미래가 보이는 비전있는 기업 (주)금강엔젤투자조합 이젠 투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엔젤투자조합이란?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자본력이나 경영기법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고도의 심사분석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자본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모임을 말합니다.

투자조합의 기능

1. 창업초기단계 자금지원
2. 공개지원기능
3. 성장지원기능
4. 기업매수, 인수자금지원
5. 경영지원

정부의 지원

- *벤처투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2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
- *벤처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1동 1205-1
고객상담 051)467-1600

(주)금강엔젤투자조합
代表理事 河希鎭(16回)